

실증사학의 ‘이념’*

—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

홍종욱**

[초 록]

랑케의 역사주의는 실증주의 역사학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비판하고 개체가 지닌 고유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역사주의는 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내세우고 엄밀한 사료 비판을 강조하였다. 역사주의 역사학이 실증사학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다. 실증사학은 사실 파악과 가치 판단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19세기 이래 실증사학의 이념은 국가와 민족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병도가 이끈 진단학회는 과학과 민족의 결합을 지향했다. 일본 실증사학의 국민사에 맞서 한국의 국민사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식민사학과 이병도의 역사학은 모두 실증사학이었다. 동아시아에 온 역사주의 실증사학은 각 나라와 지역에서 나란히 국민사 역할을 떠맡은 셈이다. 식민지기 잠재되어 있던 민족이라는 이념은 해방과 더불어 민족사 서술로 구현되었다. 실증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역사주의, 랑케, 실증사학, 식민사학, 진단학회, 이병도
Historicism, Ranke, Positivist Historiography, Colonialism Historiography,
Chin-Tan Society, Lee Byeong-do

사학이 견지해 온 민족이라는 이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역사학을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 근대 역사학과 실증사학

김용섭은 1966년 『歷史學報』에 실은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敘述」에서 한국 근대 역사학을 바라보는 큰 틀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제국기 한국인의 역사학에 대해 “科學으로서의 歷史學을 體得하기에 앞서 帝國主義와 싸워야 하는 무거운 負擔”을 진 채 ‘계몽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¹⁾ 이어 식민지기 한국인의 역사학을 ‘民族史學’, ‘랑케流의 實證史學’, ‘社會經濟史學’ 등 세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민족사학’으로서는 “民族精神의 昂揚과 日帝의 侵略을 暴露하는 데 主力”한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와 더불어 ‘文化運動’에 그친 최남선(崔南善)을 들었다. ‘랑케 류의 실증사학’은 일본이나 국내 대학에서 근대 사학의 훈련을 받은 ‘韓國史學界의 開拓者’라고 설명했다. ‘文獻考證的인 實證史學’을 배운 한국인 역사학자들의 계보는, 일본 동양사학의 개척자이자 ‘관학 아카데미즘’ 학풍을 세운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를 거쳐, 도쿄대학 사학과에서 가르친 루트비히 리스(Ludwig Riess)로 이어지고, 다시 그를 통해 랑케 사학에 닿는 것으로 그렸다. ‘사회경제사학’의 특징으로는 “個個의 歷史事實에 關한 細細한 考證的 研究를 떠나서 全體 社會經濟에 關한 體制的인 研究의 形態를 取하는 點”을 들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백남운(白南雲)과 최호진(崔虎鎭)을 소개하였다.²⁾

김용섭은 ‘랑케 류의 실증사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진단학회와 『震

1) 金容燮(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敘述」, 『歷史學報』 31, p. 132.

2) 金容燮(1966), pp. 137-140.

檀學報』에 주목했다. 식민지기 진단학회를 이끈 이는 역사학자 이병도(李丙燾, 1896-1989)였다. 김용섭은 ‘랑케 류의 실증사학’은 “본래 사실은 어떠하였는가”를 추구하는 랑케 사학의 학풍을 그대로 받아들여 “事實을 事實로서 把握하고 敍述할 따름이었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나아가 일본의 독일사 연구자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를 원용하여, 본래 랑케나 리스의 역사학은 역사주의를 형이상학적 기초로 삼았지만, 일본의 동양사학은 랑케 사학에 담긴 역사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재수용된 탓에 “우리는 이러한 貧弱한 理論的인 基盤 위에서 實證主義에 滿足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하였다.³⁾

민현구는 “철저한 실증으로 무장한” 이병도의 연구 성과는 곧 ‘근대 한국사학의 성립’을 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립투쟁이나 사회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순수 학구적 자세’로 한국사를 객관적·비판적으로 연구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⁴⁾ 민현구와 김용섭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지만, 이병도를 한국 근대 역사학의 개척자로 본 점, 그리고 이병도 사학의 ‘순수’, ‘실증’이라는 자세에 주목한 점에서 일치한다.

그런데 이병도의 저작에는 이러한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國史와 指導理念』(一潮閣, 1955)이 대표적이다. 실증사학의 선구자가 ‘이념’을 전면에 내건 셈이다. 더욱이 ‘지도이념’은 다름 아닌 랑케의 용어다. 랑케 사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인 역사주의가 일본과 한국에는 수용되지 않았다는 김용섭의 설명에서 벗어난다. 한편 이병도는 식민지기 진단학회 활동을 돌아보며 ‘일제에 대한 민족적, 학술적 항쟁’⁵⁾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병도 사학을 “독립투

3) 金容燾(1966), p. 139, p. 147.

4) 민현구(閔賢九)(2008), 「이병도, 순수 학구적 자세로 한국사학의 토대를 쌓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p. 289.

쟁이나 사회운동과는 거리를” 둔 ‘순수 학구적 자세’라고 본 민현구의 평가와 어긋난다. 즉 이병도가 남긴 저작 그리고 자신의 활동에 내린 평가에는 ‘랑케 류의 실증사학’에 대한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셈이다.

2. 실증주의와 역사주의

한국에서 통용되는 ‘실증사학’ 혹은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용어는 콩트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용섭은 ‘랑케 류의 실증사학’이라는 말을 쓰면서 “반드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⁶⁾ 임상우는, 랑케 모델 역사학의 요체를 사료 실증으로 이해한 일본 근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랑케 사학이 ‘실증사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⁷⁾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실증’이라는 말의 쓰임이 구미 역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주의)’ 개념과 다르다고 문제를 삼는다.⁸⁾

그러나 역사주의와 실증주의를 묶어서 이해하는 경향은 구미 역사학계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카(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1961)에서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이 진정 어떠했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여주는 데 있을 따름이다」라고 말”한 랑케 사학과 “과학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을 열심히 주장한 실증주의자”를 모두 ‘사실 숭배를 조장’했

5) 「韓國 古代史 研究의 方法 — 斗溪先生과 朴成壽 교수와의 對談 —」(1982), 『歷史家의 遺香 — 斗溪李丙燾先生追念文集 —』, 한국학술정보(2012), p. 341.

6) 金容燮(1966), p. 137.

7) 임상우(2014), 「‘과학적’ 역사학과 국가주의 역사서술」, 『歷史學報』 224, p. 97쪽.

8) 小山哲(2016), 「実証主義的「世界史」」, 『「世界史」の世界史』(秋田茂 외 편저), ミネルヴァ書房, p. 273.

다고 비판하였다. 카는 “19세기는 사실을 존중한 대단한 시대”였다고 보았는데, “역사란 반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최대한 편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19세기의 이단사상’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⁹⁾ 그렇다면 카는 왜 랑케를 실증주의와 동일시하였을까.

18세기는 ‘계몽의 세기’였다. 15세기 말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기독교적 세계관과 자연관에 대한 의문이 싹텄다. 뉴턴은 『프린키피아』(1687)를 지어 운동 원리와 천체 움직임을 밝힘으로써 자연 인식의 새 지평을 열었다. 계몽 사상가들은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법칙을 동일시하였다. 기독교적 보편사를 대신해서 세계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그 기원과 발전을 탐구하는 ‘세계사’ 혹은 ‘인류사’가 쓰였다. 볼테르는 ‘역사철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였다. ‘세계 시민’이 등장하고 ‘과학적 세계사’가 제시되었다.¹⁰⁾ 19세기 들어 콩트를 비롯한 실증주의자들은 자연과학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을 밝히고자 하였다.¹¹⁾ 자연을 본떠 제시된 문명의 발전단계는 실증적(positive)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과제였다. 역사연구 역시 그러한 법칙을 증명해 내는 귀납적 논리에 입각한 과학적 탐구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신과 이념, 유일성과 직관력에 근거한 역사서술은 설 자리를 잃었다.¹²⁾

프랑스 계몽사상이 신학적 사고를 철저히 배제한 데 비해, 독일의 역사 서술에서는 신이 여전히 숨어 있는 주재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인간은 독자적 본질을 지닌 개체로 간주되었다.¹³⁾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는 자신의 역사연구가 본래 나폴레옹 이념의 배타적 지배에

9) E. H. 카 저, 길현모 역(2015), 『역사란 무엇인가』(1966), 탐구당, pp. 10-11, p. 20.

10) 弓削尚子, 『啓蒙主義の世界(史)觀』, 『「世界史」の世界史』(秋田茂 외 편저), pp. 255-260 참조.

11) 小山哲(2016), p. 274.

12) 임상우(2014), pp. 88-90.

13) 강성호(2014), 「헤르더(J. G. Herder)의 역사주의와 계몽사상」, 『역사주의: 역사와 철학의 대화』(한국사학사학회 편), 경인문화사, p. 35.

대한 반항의 결과였다고 밝혔다.¹⁴⁾ 1830~48년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 대립이 격심했다. 랑케는 프랑스에서 밀려오는 자유주의 물결에 맞서 민족의 독자적 개성을 존중하려는 보수주의를 택하였다. 랑케는 계몽사상의 합리주의를 회의하고 역사적 형성물과 개체의 존재를 중시하는 점진적 진화를 목표로 하였다.¹⁵⁾

랑케는 계몽주의, 실증주의의가 숭배하는 자연과학의 인과론을 경계했다. 아울러 헤겔의 진보사관을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목적론이라 보고 반대했다. 랑케는 인과적 결정론과 진보의 목적론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벗어나, 각 시대에서 인간 행동의 자유를 한계 지은 역사적 조건을 파악하고자 했다.¹⁶⁾ 역사주의의 성립이었다. 랑케는 헤겔의 역사관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이념으로써 채워진 단순한 그림자들이거나 도식들에 불과”하며, “세계정신이 말하자면 기만적으로 사실을 출현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정열을 이용한다는 학설에는 신과 인류를 지극히 품위 없이 사고하는 하나의 관념이 깔려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⁷⁾

역사학자 마이네케는 계몽사상과 단절을 강조하여 역사주의를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혁명 가운데 하나”라고 칭송하였다.¹⁸⁾ 개체 사상과 발전 사상이야말로 역사주의 이론을 특징짓는 양대 날개였다. 역사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역사의 발전이란 시대와 지역, 민족과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계몽 사상가들이 천명한 일률적 진보와는 다른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예리하게 드러내는

14) 차하순(1984), 『랑케와 부르크하르트』, 탐구당, p. 87.

15) 차하순(1984), pp. 100-101.

16) E. H. 카 저, 길현모 역(2015), pp. 79-81.

17) 레오폴트 폰 랑케 저, 이상신 역(2011), 『근세사의 여러 시기들에 관하여』, 신서원, p. 37쪽.

18) 최호근, 「계몽사상과 역사주의」, 『역사주의: 역사와 철학의 대화』(한국사학사학회 편), p. 54.

개념이 바로 ‘개체성’이었다.¹⁹⁾ 임마누엘 윌러스틴은 랑케적 역사학을 ‘개성기술적 개별과학’, 콩트나 버클로 대표되는 실증주의는 ‘법칙정립적 개별과학’이라고 불렀다.²⁰⁾

역사주의는 역사학을 분과학문으로 정립하였다. 1833년 랑케는 베를린 대학에 세미나 방식을 도입하여, 증거에 대한 정통적 법칙을 강조하고 단순한 전문은 믿을 수 없으며 가장 근접해 있는 충실한 증언에 의존해야 함을 가르쳤다.²¹⁾ 계몽주의 그리고 실증주의 사상가들도 역사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사료비판을 중시하였으나, 이를 서술의 영역에서 연구의 영역으로 옮긴 것은 역사주의 역사가들이었다. 드로이젠은 사실 사이의 연관관계가 수사학이 아니라 ‘문제제가-자료수집-문헌비판-해석으로 이어지는 역사연구’를 통해서 해명된다고 주장하였다. 1876년 나온 『역사평론』(*Revue historique*) 창간호는 “예증, 출처에 대한 언급, 인용문이 구비된 엄격하게 학문적인 서술방식”을 갖춘 논문들만 게재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였다.²²⁾

이념 추구가 열어지고 사실 파악만이 강조되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드로이젠은 랑케 사학을 ‘환관의 객관성’(*eunuchische Objektivität*)이라고 비판하였다.²³⁾ 이념의 결여에 대한 지적이었다. 역사주의의 위기가 말해지는 가운데 크로체는 『역사서술의 이론과 역사』(1915)에서 랑케 사학을 실증주의 역사학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그것이 실증주의라는 철학사상의 세례를 받고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였다.²⁴⁾ 19세기 유럽

19) 최호근, 「계몽사상과 역사주의」, pp. 61-62.

20) 小山哲(2016), pp. 274-275.

21) 차하순(1984), p. 95.

22) 최호근, 「계몽사상과 역사주의」, pp. 63-64.

23) 노명환, 「랑케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발전의 상호관계」, 『역사주의: 역사와 철학의 대화』(한국사학사학회 편), p. 108.

24) 이상현(2017),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 비코, 크로체, 콜링우드를 중심으로 —』, 삼화, p. 125.

에서 성립한 두 가지 학지(學知)의 계보 즉 랑케적 역사학과 실증주의자 콩트나 버클의 문명사론은 모두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구하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을 지향하였다.²⁵⁾ 랑케를 실증주의자와 함께 묶어 비판한 카의 입장은 이러한 인식 위에 선 것이다.

랑케 사학은 카의 비판처럼 그저 사실 숭배에 그쳤을까. 김기봉은 카의 판단이 “역사 인식의 궁극적 목표를 역사에 담겨진 ‘신의 비밀문자’를 해독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랑케의 역사신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²⁶⁾ 랑케 사학은 사료 비판 즉 실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담긴 이념을 밝히고자 하였다. 랑케의 이념은 바로 국가 혹은 민족에 맞춰졌다. 헤이든 화이트는 『메타 역사』에서 “역사 해석에 대한 랑케의 체계에 나타난 한 가지 요소가 순수한 역사적 사실 이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국가 이념’에 대한 강조라고 보았다.²⁷⁾ 랑케의 형이상학적 국가관은 헤겔의 관념주의적 역사철학을 계승한 것이었다.²⁸⁾ 헤겔 역사관은 글로벌한 시야에 선 진보사관이라는 점에서 계몽기의 세계사나 인류사의 연장이지만, 그 가운데 국가라는 개념을 특권화했다.²⁹⁾

그렇다면 랑케와 카의 이념은 어떻게 다른가. 랑케가 국가와 민족에 관심을 두었다면, 카는 20세기 사회주의 진영의 성장을 굳게 믿은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나 실증주의 역사학과 친화적이다. 물론 실증주의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19세기 시대정신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국민이나 민족을 주체로 삼아 ‘세계사’를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법칙

25) 小山哲(2016), p. 274.

26) 김기봉,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역사주의: 역사와 철학의 대화』(한국사학사학회 편), p. 76.

27) 헤이든 화이트 저, 천형균 역(2011), 『메타 역사 I』, 지식올만드는지식, pp. 367-368.

28) 임상우(2014), p. 100.

29) 弓削尚子, 「啓蒙主義の世界(史)觀」, p. 265.

정립적인 접근을 취하는 문명사가도, 개성기술적인 접근을 취하는 랑케사학 신봉자도 같은 인식 토대를 공유했다.³⁰⁾ 이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도 마찬가지였다. 카는 ‘우리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은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뿐’이라는 헤겔의 말을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했다.³¹⁾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 추구이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옹호이든, 근대 역사학이 내건 ‘과학적 객관성’에는 어긋난다. 사실 파악이 가치 인식으로 직결될 수 없고, 사료가 이념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대 역사학의 모순과 비약이 있다. 관념적 가치를 다루는 역사 세계의 이해를 위해 실증주의적 과학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결국 역사주의는 관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면서도, 실증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성 유지에 대한 낙관적 태도 즉 ‘순진한 객관주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³²⁾ “역사가란 사실과 해석, 사실과 가치의 양자 사이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들”³³⁾이라는 카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사료 비판과 이념 추구 사이의 줄타기라는 점에서 랑케도 카도 마찬가지였다. 사실과 가치 사이를 직관 혹은 낙관으로 메우는 것은 근대 역사학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계몽주의와 실증주의 역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랑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주의 역사학을 ‘실증사학’으로 부르고자 한다. 실증사학의 특징은 사료 비판과 이념 추구의 결합에 있는데, 이 때 이념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실증사학은 보편적 발전법칙을 회의하고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개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역사학의 문명사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구분된다. 실증사학은 19세기

30) 小山哲(2016), p. 289.

31) E. H. 카 저, 길현모 역(2015), p. 192쪽.

32) 임상우, 「역사주의의 위기: 에른스트 트릴취의 상대주의적 역사주의」, 한국사학사학회 편, 『역사주의: 역사와 철학의 대화』, 195쪽.

33) E. H. 카 저, 길현모 역(2015), p. 200.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등으로 전파되면서, 근대 역사학 특히 아카데미즘 역사학의 본류를 이루었다.

3. 일본의 랑케 사학 수용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가 지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2003)의 첫 절은 ‘문명사·계몽주의 역사학의 전개’이고 다음 절은 ‘근대 실증주의 역사학의 탄생’이다.³⁴⁾ 여기서 ‘실증주의 역사학’이란 이 글에서 말하는 실증사학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라면, 문명사·계몽주의 역사학을 대표하는 성과는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의 『日本開化小史』(1877-1882)이다. 나가하라는 “다구치의 문명사론은 역사를 보는 축으로서 ‘경제’, ‘진보’, ‘법칙’ 등을 의식적으로 제출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이후 실증사학이 본류를 이루면서 이러한 흐름은 점차 희미해졌다고 분석했다.³⁵⁾ 유럽과 마찬가지로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실증사학이 대두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증사학이 자리를 잡는 데는 독일인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의 역할이 컸다. 리스는 1887년에 제국대학 사학과 교원으로 부임하여 1902년까지 머물면서, 1889년 사학회(史學會) 창설을 주도하는 등 일본 학계에 랑케 사학을 전파했다. 1903년에 도쿄제국대학에서는 초창기 일본 아카데미즘 사학이 랑케를 자신들 학문 분야의 창시자로서 반쯤 신격화하고 현창하는 의례인 ‘랑케祭’가 열렸다. 여기서 행해진 기념 강연을 보면, 일본 아카데미즘 사학 창시자들은 ‘사료 비판 방법’과 더불어 랑케 사학이 지닌 ‘세계사’적인 시야의 확장을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34) 永原慶二(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学』, 吉川弘文館.

35) 永原慶二(2003), p. 25.

36) 永原慶二(2003), p. 279.

1932년에 출판된 사카구치 다카시(坂口昂)의 『독일사학사』는 랑케가 역사학에 공헌한 점으로서 ‘문헌학적, 비판적 방법’과 더불어 ‘세계사적 파악’을 들었다.³⁷⁾

랑케가 말하는 ‘세계사’는 국가나 민족에 내재하는 ‘도덕적 에네르기’ 사이의 충돌, 투쟁, 성쇠 과정이었다.³⁸⁾ 따라서 세계사는 필연적으로 국가나 민족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임지현은 한국과 일본에서 세계사는 ‘국민사의 포석’이라고 보고, 유럽 중심주의적인 ‘애국적 세계사’가 발흥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³⁹⁾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이윽고 지구적인 시대정신이 되었다. 민족과 국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여서 그것이 지닌 이념성은 가려졌고, 오히려 민족이 아닌 것을 말하면 이념적으로 비치는 상황이 도래했다. 실증사학의 이념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김용섭이 ‘랑케류의 실증사학’을 설명하면서 원용한 바 있는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는 19세기 말 일본 학계의 랑케 사학 수용은 “주로 연구방법의 정치함이나 확실함을 배움으로써 역사 연구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살핀 대로 “랑케나 리스 역사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인 역사주의를 그렇게 주목하거나 그대로 소화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⁴⁰⁾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본에서 역사 연구자가 ‘실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엄밀한 사료 비판에 바탕한 역사연구의 수법’⁴¹⁾을 가리키게 된 것은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37) 小山哲(2016), p. 283.

38) 小山哲(2016), p. 285.

39) イムジヒョン 저, 小山哲 역(2015), 「国民史の布石としての世界史: 日本と朝鮮における「愛国的世界史」と, その結果として生じるヨーロッパ中心主義について」, 『思想』 1091 참조.

40) 上原專祿(1958), 『歴史學序説』, 大明堂, p. 171.

41) 小山哲(2016), p. 272.

한편 교토학파의 역사철학은 사카구치 다카시가 말한 두 가지 측면 즉 ‘문헌학적, 비판적 방법’과 ‘세계사적 파악’ 가운데 후자를 강조하여, 랑케를 ‘세계사의 철학’의 선구자로서 위치 지었다.⁴²⁾ 교토학파의 중심인 물로 『랑케와 세계사학』(1939)을 지은 스즈키 시게타카(鈴木成高)는 “이른바 ‘랑케학파’라는 것이 반드시 랑케의 올바른 상속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⁴³⁾ 스즈키는 랑케가 ‘소위 실증사학의 권위로 추앙’되지만, “같은 실증이라고 해도 감각에 의해 대상에 직접 접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그 실증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⁴⁾ 랑케 사학의 이념성을 복원하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일본 동양사학의 창시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의 역사학을 살펴보자. 시라토리는 일본의 관학 아카데미즘과 식민지 조선의 역사학을 잇는 고리였다. 도쿄대학 사학과에서 리스에게 직접 랑케 사학을 배운 시라토리는, 후일 같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의 조선사 연구자를 길러냈고, 만철 역사조사부를 세운 뒤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을 지휘하여 식민 지배 및 대륙 침략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섰다.⁴⁵⁾ 특히 역사조사부의 작업은 역사지리 고증이 중심이었다. 시라토리 스스로 “역사의 기초는 지리”라는 말을 남겼다. 쓰다 소키치는 시라토리에 대해 “유럽에서 발달한 근대적 사학 특히 사료 비판의 학문적 방법의 일면 및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를 중시했다고 평가했다.⁴⁶⁾

시라토리는 일본 실증사학의 태두로 여겨진다. 다만 시라토리가 랑케

42) 小山哲(2016), p. 285.

43) 鈴木成高(1939), 『ランケと世界史學』, 弘文堂書房, p. 4(서문).

44) 鈴木成高(1939), pp. 28-29.

45) 井上直樹(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州認識 —』, 塙書房, p. 137.

46) 井上直樹(2013), p. 141.

를 모델로 삼은 것은 엄격한 ‘실증’주의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와 지배적 경향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틀 때문이었다.⁴⁷⁾ 김용섭은 리스가 사료 비판적인 독일 사학의 방법을 이식함으로써, “漢學風의 考證學的 史學과 史論時論을 즐기는 啓蒙史學을 止揚시켰다”고 분석했지만,⁴⁸⁾ 실은 시라토리는 사론과 시론을 즐겼다. 예컨대 시라토리는 ‘국민성’을 “그 나라의 위치·경력·경우 등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성질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이나 조선의 ‘국민성’은 ‘진보성’이 부족한데, 진보성의 유무가 정신의 우열을 판가름한다고 말했다.⁴⁹⁾ 따지고 보면 시라토리의 국민성론은 리스에서 온 것이었다. 리스는 랑케가 말하는 ‘서구 정신’을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더 갖춘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물론 일본인이 서양인에 비해 개성과 자의식 발달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⁵⁰⁾

시라토리나 리스의 국민성론은 사료 비판이나 실증 연구와는 거리가 먼 이념의 독주였다. 이 글에서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근대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실증사학의 일본적 변용 혹은 왜곡은 아니었다. 랑케 역시 세계사를 말하면서, ‘세계사의 내적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양과 같은 “영구히 정지한 여러 민족에서 출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⁵¹⁾ 때로는 사료를 넘어 이념이 횡행하는 것 역시 실증사학 혹은 근대 역사학이 지닌 속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라토리는 만한(滿韓) 지방에 관한 근본적 연구의 의의로서,

47)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p. 104.

48) 金容燮(1966), pp. 129-130.

49) 미쓰이 다카시(2016), 「천황제와 ‘근대 역사학’과의 틈새 — 동양사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사론/시론과 그 논법 —」,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 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윤해동·이성시 엮음), 책과함께, p. 176.

50) 미쓰이 다카시(2016), p. 183.

51) 小山哲(2016), p. 281.

① 만한경영에 관한 실제적 필요, ② 순연한 학술적 견지를 들었다.⁵²⁾ 일본 실증사학의 태두는 거리낌 없이 이념 혹은 가치를 사료 비판이나 사실 파악에 앞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이념은 다름 아닌 일본의 국가 이익이었다.

4.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

1936년 5월 『東亞日報』에는 ‘랑케 死後 五十年’ 특집 기사가 실렸다. 백낙준은 랑케를 ‘과학적 역사가의 開祖’라고 부르고, “普魯西의 復興은 ‘예나’에서 ‘나폴레온’에게 慘敗한 以後로부터 비롯하였고 이러케 이어나는 國民的 自覺은 獨逸 歷史의 新研究에 表現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낸 事實 그대로’ 述할 것”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여 ‘根本史料’를 중시하는 태도를 평가하고,⁵³⁾ 동시에 ‘時代의 精神’, ‘時代의 思想’ 혹은 ‘時代의 觀念’을 강조하는 면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랑케를 “世界史觀의 把持者인 동시에 獨逸國史學者요, 또한 民族主義의 史學者”라고 평가했다.⁵⁴⁾ 김병모는 랑케가 역사가로서 국민 혹은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나폴레옹의 독일 지배였다고 설명했다.⁵⁵⁾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료와 이념, 국민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추구하는 랑케 사학의 특징을 온전히 이해했고, 특히 랑케를 약소민족 출신으로 받아들여 그 처지에 공명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연구에서 랑케 사학의 영향은 어떻게 드러났을까.

52) 박준형(2018), 「일본 동양사학의 계보와 ‘실증’주의의 스펙트럼 —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滿鮮史’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 34, p. 20.

53) 白樂潛, 「史學史上的 巨星 레오폴드· 폰· 랑케 (上)」, 『東亞日報』, 1936.5.23.

54) 白樂潛, 「史學史上的 巨星 레오폴드· 폰· 랑케 (中)」, 『東亞日報』, 1936.5.24.

55) 金炳模, 「랑케와 그 時代 (下)」, 『東亞日報』, 1936.5.27.

식민지기 한국 역사학을 대표하는 학자는 이병도였다. 김재원은 이병도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면서 “선생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또는 첫 번째의 역사가라는 것은 물론 아니”⁵⁶⁾라고 언급했지만, 마치 이병도가 그러한 존재였다고 에둘러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병도는 해방 후 연구 방법론에 대해 말하면서 ‘독일의 랑케 같은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하고, 자신의 연구도 ‘한마디로 실증적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⁵⁷⁾ 다른 곳에서는 식민지기 연구방식을 ‘요즈음 말로 하면 실증사학’이라고 회고하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인 실증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솔직히 이야기하면’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렇다고 랑케의 저서를 읽고 제대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⁵⁸⁾

식민지기 이병도의 역사 연구를 살펴보자.⁵⁹⁾ 첫째, 고대사 방면에서는 1929년에 「眞番郡考」[『史學雜誌』 40 (5)]를 발표한 이래, 한 근현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1934년에는 『震檀學報』 창간과 동시에 「三韓問題의 新考察」을 연재했다. 이병도의 고대사 연구는 ‘철저한 문헌 고증과 합리적인 해석’이 강점이었다. 일련의 연구는 『韓國古代史研究』(1976)로 종합되었다. 둘째, 지리도참에 대해서는 1926년 「陰陽地理說と高麗歷代の遷都論」[『朝鮮史學』 1 (2)-(3)]을 비롯하여 고려의 삼소(三蘇)를 다룬 논문 등 사상과 시대 환경의 관련을 규명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도참사상에 관한 10여 편의 논문은 『高麗時代の 研究』

56) 金載元, 「한평생 震檀學會를 가꾸어 오신 斗溪先生」(1991), 『歷史家の 遺香』, p. 233.

57) 「實證史學과 民族史觀 — 斗溪先生과 鄭弘俊氏와의 對談 —」(1984), 『歷史家の 遺香』, p. 362.

58) 「研究生活의 회고(2) — 斗溪先生 九旬紀念 座談會 —」(1986), 『歷史家の 遺香』, p. 406.

59) 閔賢九, 「역사가로서의 斗溪 李丙燾先生」(1999), 『歷史家の 遺香』, pp. 479-482
참조 이병도의 논저 일람은 「斗溪先生 論著目錄」, 『歷史家の 遺香』, pp. 501-517
참조.

(1948)로 묶였다. 셋째, 유학사에 대한 관심은 학술지에 발표한 첫 논문이 「李栗谷‘入山’の動機に就て」였다는 데서 드러난다. 이병도는 1930년대 규장각에 출입하면서 수천 권의 조선시대 문집을 열람 검토하여 관계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韓國儒學史』(1987)로 열매를 맺었다. 후일 이병도는 자신의 연구를 돌아보며 고대사 방면,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도참, 조선 유학사를 ‘三面作業’이라고 부른 바 있다.⁶⁰⁾

그렇다면 이병도의 역사학과 일본 실증사학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병도는 한 근현 위치 비정 등 역사지리학 논문을 다수 남겼다. 이병도는 와세다(早稻田)대학 재학시절 스승인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에 대해 “나의 생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⁶¹⁾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요시다는 『大日本地名辭書』(1900-1909)를 펴내는 등 바로 역사지리학의 권위였다.⁶²⁾ 아울러 ‘역사의 기초는 지리’라고 주창한 시라토리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병도는 여러 곳에서 도쿄대학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와 와세다대학의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영향을 언급했다.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이병도에게 두 사람은 논문과 저서를 보내주었다. 특히 이케우치는 이병도를 조선사편수회에 취직할 수 있게 추천하고, 일본의 『史學雜誌』 혹은 『東洋學報』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도왔다.⁶³⁾

이병도 사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병도 스스로 ‘실증적이고 비판적’⁶⁴⁾이라고 평가한 쓰다와 이케우치의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자. 쓰다의 첫

60) 李丙燾(1977), 「自序」,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61) 李丙燾, 「華麗한 友情 50年」(1970), 『隨想 雜筆』, 한국학술정보(2012), pp. 382-383.

62) 永原慶二(2003), pp. 59-60.

63) 「韓國 古代史 研究의 方法 — 斗溪先生과 朴成壽 교수와의 對談 —」(1982), p. 340, 「研究生生活의 회고(1) — 斗溪先生 古稀紀念 座談會 —」(1966), 『歷史家の遺香』, p. 376.

64) 「韓國 古代史 研究의 方法 — 斗溪先生과 朴成壽 교수와의 對談 —」(1982), p. 340.

작품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1913)는, 중국 고대의 성제(聖帝)라고 여겨지는 요순우(堯舜禹)의 실재는 부정하지만 그 전설을 만들어낸 중국인의 사상은 실재한다는 시라토리의 사고방식을, 일본의 기기(記紀, 古事記와 日本書紀) 신화에 적용한 것이다.⁶⁵⁾ 쓰다는 ‘고전 연구’는 고전에 적혀 있는 ‘사실성’은 부정하지만, 도리어 그것에 사상사적, 정신사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진실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⁶⁶⁾ 사료를 넘어 존재하는 사상사적, 정신사적 ‘진실’을 추구한 쓰다는 1910년대 후반에는 『문학에 드러난 우리 국민사상 연구』(文學に現われたる我が國民思想の研究) 3부작을 통해 국민사상, 국민사의 정립을 꾀했다.⁶⁷⁾

이케우치도 사료를 넘어 ‘논리’를 강조했다.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이케우치가 “설령 사료가 없더라도 논리적으로 증명된 가설은 실재”로 보았다면서 그의 연구방법을 ‘일종의 논리학’이라고 평가했다.⁶⁸⁾ 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는 이케우치를 “실증주의와 합리주의로 일관”했다고 평가했고, 아오야마 고료(青山公亮)는 이케우치가 ‘직감’을 중시했다고 기억했다. 때문에 스즈키 슌(鈴木俊)은 이케우치가 시라토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하타다 역시 이케우치가 “이른바 실증주의와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했다.⁶⁹⁾ 그러나 랑케 이래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증주의의 영향 아래 성립한 실증사학은 결코 사료 비판이라는 방법론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 사실과 가치, 사료와 이념을 결합해

65) 永原慶二(2003), p. 67.

66) 津田左右吉(1965), 『津田左右吉全集 第20卷 歴史學と歴史教育』, 岩波書店, p. 344.

67)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2016),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국민사 구상 — 다민족제국의 단일민족국가론 —」,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 탈식민주의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윤해동·이성시 엮음), 책과함께, pp. 102-103.

68) 旗田巍(1966),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学の伝統」, 『歴史像再構築の課題 — 歴史学の方法とアジア —』(幼方直吉·遠山茂樹·田中正俊), お茶の水書房, p. 214.

69) 東方学会編(2000), 『東方学回想II 先学を語る(2)』, 刀水書房, pp. 170-174.

국민사를 추구한 쓰다와 이케우치, 그리고 시라토리는 모두 정통 실증사학자였다.

해방 후 이병도는 연구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대해, 먼저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역사학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상이 객관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⁷⁰⁾ 다른 곳에서는 역사학이 “기록의 학문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판의 학문이요, 사색의 학문”이라고 말했다. 즉 자료 너머에 있는 의의와 가치를 발견해야 되며, 특수성을 통해 일반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¹⁾ 일본에 건너가 근대 역사학을 익힌 이병도 역시 사실 파악과 가치 인식을 결합하는 실증사학의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이념은 민족을 향했다.

식민지기 이병도는 역사주의에 입각한 사론을 전개하기보다, 한국인끼리 진단학회를 세워 『震檀學報』를 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병도가 진단학회를 주도한 것은 그 사무소를 자신의 집에 둔 데서 알 수 있다.⁷²⁾ ‘震檀’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스스로 「震檀辨」을 지어 도참사상에서 유래한 ‘大東方(今日の 滿鮮을 包含한 當義의 朝鮮)’을 가리키는 ‘秘稱’ 혹은 ‘讖緯家 理想의 大朝鮮에 對한 別名’이라고 설명했다.⁷³⁾ 『震檀學報』는 우리말로 된 학술지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녔다. 『震檀學報』 창간호 「회보」는 “어느 社會의 文化든지 그것을 眞實 且 正確히 檢討 認識하고, 또 이를 向上發達함에는 그 社會에 生을 受하고, 그 風俗 慣習中에서 자라나고, 그 言語를 말하는 社會의 사람의 努力과 誠熱에 期待함이 더 큰 까닭”이라고 적었다.⁷⁴⁾

70) 「實證史學과 民族史觀 — 斗溪先生과 鄭弘俊氏와의 對談 —」(1984), p. 362.

71) 「韓國史의 前進 — 斗溪先生과 韓祐旻 교수와의 對談 —」(1969), 『歷史家의 遺香』, p. 273.

72) 「彙報 震檀學會創立」(1934), 『震檀學報』 1, p. 224.

73) 李丙燾(1934), 「震檀辨」, 『震檀學報』 1, p. 173.

74) 「彙報 震檀學會創立」(1934), p. 227; 정병준(2016), 「식민지 관계 역사학과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역사학의 태동 —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1920년 이병도는 염상섭, 김억 등이 주도한 문예지 『廢墟』에 동인으로 참가한다. 아카데미즘 역사학의 태두로서는 뜻밖의 경력이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말로 된 잡지를 발간하는 의의를 일찍이 깨닫고 있던 셈이다. 권보드래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민족어 글쓰기의 공간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조선인들은 새롭게 형성된 ‘유사-사회’에서 ‘유사-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⁷⁵⁾ 이병도의 『震檀學報』 발간 역시 우리말과 글로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후식민(postcolonial) 주체의 싸움을 띄우려는 노력이었다고 판단된다. 1934년 『震檀學報』 창간 이후 이병도의 일본어 글쓰기는 중단된다. 차마 우리말 논문을 보낼 수 없었을 『稻葉博士還曆紀念滿鮮史論叢』(1938)에는 한문으로 지은 글을 보냈다.⁷⁶⁾ 일본어 글쓰기 회피가 그저 우연이 아닌 의식적인 실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말로 된 『震檀學報』는 오늘날 한국 인문학을 가능하게 한 원점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병도가 존재했다.

이병도는 진단학회 활동의 동기를 “계몽주의적 사조에서 탈피하여 실증적인 과학적인 학문을 하자는 것과 일본에 대한 학문적인 항쟁을 하자는 것”⁷⁷⁾이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실증사학의 이념이 국가와 민족을 향한 점을 떠올릴 때, 우리말로 된 『震檀學報』 발간은 어떤 급진적인 과학주의, 민족주의 사론도 훔내 내기 어려운 중요한 실천이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위한 진단학회 활동은 일본 실증사학의 국민사에 대한 항쟁이자 그 자체가 한국의 국민사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실증사학에서 배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항한 셈이다. 『震

10, p. 126 참조.

75) 권보드래(2019), 『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 돌베개, p. 456.

76) 「斗溪先生 論著目錄」, pp. 501-517 참조.

77) 「近代 韓國史學의 발전 — 斗溪先生과 李基白 교수와의 對談(1) —」(1975), 『歷史家의 遺香』, p. 305.

檀學報』는 도유호(都有浩)의 독일어 논문, 프랑스 학자와 의견 교류, 해외에 체류 중인 한흥수(韓興洙)와 서신 왕복 등을 게재했다.⁷⁸⁾ 우리 국민사를 세계사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분투였다.

5. 실증사학의 ‘이념’

이병도는 해방 직후인 1948년 한국사 통사인 『朝鮮史大觀』을 펴냈다. 이 책 「總說」의 첫머리인 「歷史研究的 對象과 目的」은 ‘역사는 과학’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歷史는 科學이다. 그러나 그 研究的 對象은 自然科學의 그것과 대단히 다른 點이 있다. 自然科學의 對象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항상 反覆하고 完成되어 있다. (중략) 이렇게 自然現象의 變化는 한 循環反覆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歷史科學의 對象인 人間의 事爲는 항상 새롭고 또 完成되어 있지 않다. 즉 人間 事爲의 變化는 늘 보다 나흔 데로, 보다 完全한 것으로 進行하는 것이다. 自然中의 모든 現象은 進歩치 아니하나 歷史의 對象인 事爲의 變化는 進歩的 이요 發展的 이다.⁷⁹⁾

이병도에게 역사는 과학이었다. 다만 ‘역사과학’은 인간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과학’과는 달랐다.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던 계몽주의,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역사학의 고유성을 믿은 역사주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과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78) 정병준(2016), p. 132.

79) 李丙燾(1948), 『朝鮮史大觀』, 同志社, pp. 1-2.

歷史는 단지 事實의 記錄으로써 끝이는 것이 아니다. 史料와 事實을 檢討하고 批判하고 思索하여 眞相을 밝히는 同時에 그 裏面 혹은 그 以上에 들어나 있지 않는 어떤 意義와 價値를 發見하면서 항상 새롭게 觀察하여야 한다. (중략) 그러나 歷史를 새롭게 考察한다고 客觀을 沒却한 主觀이거나 어느 한 個人의 史觀에 치우치거나 또는 事實을 孤立的, 標本的으로 考察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중략) 이리하여 歷史는 進歩되고 또 여기서 人間 事爲의 어떤 秩序, 目的 또는 眞理를 把握하게 된다. 歷史의 究竟目的은 즉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⁸⁰⁾

이병도는 사료와 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의의와 가치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실 판단과 가치 인식, 사료 비판과 이념 추구를 결합하는 태도는, 스승인 일본의 실증사학자들과 통하는 것이자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한 랑케 이래 실증사학의 전통을 잇는 것이다. 다만 ‘역사과학’이 도입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가치나 이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카는 역사가를 사실과 가치 사이에 몸의 균형을 잡는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낙관, 즉 사실과 가치 사이의 모순을 직관으로 메우는 것이야말로 근대 역사학의 속성이었다. 이병도 역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이 인간 사회의 ‘질서’, ‘목적’, ‘진리’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한 셈이다.

총설의 두 번째 항목인 「朝鮮史의 意義」에서는 민족과 역사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民族은 個人과 같이 단지 그 自體가 存在하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歷史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生活이 活動의이고 또 豊富치 아니하면 아니 된다. 歷史의인 民族은 政治的, 社會的인 憲法을 가져 政治에 一定한 秩序를 가추고 社會에 一定한 正義를 保存하고

80) 李丙燾(1948), p. 2.

있는 것이다.⁸¹⁾

다른 설명 없이 첫 문장의 주어가 ‘민족’으로 시작한다. 이병도에게 역사 서술의 주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민족이었다. 민족, 국가를 역사의 주체로 삼는 19세기 이래 역사주의의 맥을 이었다. 총설의 다음 항목은 「地理的 條件」, 「朝鮮民族의 構成」으로 이어진다.

이병도는 모든 민족이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고, ‘헌법을 가져 정치에 일정한 질서’를 갖춘 민족, 즉 국가를 형성한 민족만이 ‘역사적인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아닌 랑케의 민족관과 통하는 내용이다. 랑케는 민족국가로 표현되는 자기실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모든 민족과 문명은 유럽 근대사의 진정한 역사적 역명기인 16세기 이전의 원 역사적 암야와도 같은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랑케에게 민족국가 체제의 형성은 만물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모든 운동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 지점이었고, 역사가의 임무는 ‘민족성의 원리를 재강조’함으로써 야만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⁸²⁾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음으로써 조선은 ‘역사적인 민족’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병도가 역사주의 전통을 잇는 「총설」을 부친 『朝鮮史大觀』을 펴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병도는 1955년에 『國史와 指導理念』이라는 단행본을 내었다. 이 책에서는 ‘지도이념’을 “過去 우리의 實際生活 즉 社會生活, 國家生活 및 文化生活을 라드하고 支配하여 온, 모든 思想과 精神을 意味하는 것”⁸³⁾이라고 정의한다. ‘지도이념’은 실은 랑케의 용어이기도 하다. 랑케의 『근세사의 여러 시기들에 관하여』(1854)는 “필생의 학문적 작업들이 처음으로 거대하게 요약된 초안”이라고 평가된다. 이 책에서 랑케는 우

81) 李丙燾(1948), p. 3.

82) 헤이든 화이트 저, 천형균 역(2011), pp. 369-371.

83) 李丙燾(1955), 『國史와 指導理念』, 一潮閣, p. 63.

선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바로서, 첫째, ‘진보’의 개념 일반, 둘째, 이 개념과 관계 속에서 ‘지도이념’(指導理念, die leitende Idee)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었다. 랑케는 ‘지도이념’을 ‘각 세기의 지배적 경향’이라고 정의했다.⁸⁴⁾ 김기봉에 따르면 랑케는 각 시대에는 인간 자유의 역사적 조건을 규정하는 그 나뭇의 ‘주도이념’(die leitende Idee)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⁸⁵⁾ 이병도와 랑케의 지도이념은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國史와 指導理念』은 「第1篇 國史의 概要」와 「第2篇 過去의 指導理念」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에서는 『朝鮮史大觀』을 증보한 『新修 國史大觀』(1954)의 줄거리를 정리하였다.⁸⁶⁾ 「1. 國史의 意義」는 “國史는 말할 것도 없이 過去 우리 民族이 어떻게 發展하여, 즉 어떠한 徑路를 밟아 오늘의 現狀에 이르렀는가를 研究하는 學問이다”⁸⁷⁾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民族의 最高精神, 最高理念’을 ‘共同體의 精神’이라고 규정하였다.⁸⁸⁾ 제2편의 「緒論」에서는 ‘指導理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의 過去生活을 通하여 持續的으로 支配해 오던 最高理念은 무엇인가. 나는 年來 歷史學的 또는 社會學的 立場에서 이를 考察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즉 遠古以來 共同體의 生活을 通하여 나타난 協同精神과 妥協主義를 抽出할 수 있다. 이 協同·妥協主義의 思想은 우리 生活의 源泉의인 理念이 되어, 여기

84) 레오폴트 폰 랑케 저, 이상신 역(2011), p. 25, p. 31.

85) 김기봉,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p. 78.

86) 李泰鎭(2012), 「斗溪 李丙燾 한국사학에서의 공동체 문제」, 『震檀學報』 116, p. 373.

87) 李丙燾(1955), p. 9.

88) 李丙燾(1955), p. 11.

서 우리의 政治와 宗教와 倫理道德과 經濟 其他의 文化가 發生하고 發達하였으며, 또 外來의 文化와 思想도 이와 合流하고 結付하여 더욱 多彩한 빛을 發하였던 것이다.⁸⁹⁾

이병도는 ‘협동정신과 타협주의’를 ‘최고이념’으로 꼽았다. 이것이 ‘원천적인 이념’이 되어 외래 문화와 사상과 관계를 맺으며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일본적인 것’이 외래 문화 특히 중국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민 문화’로 가다듬어졌다는 쓰다 소키치의 ‘국민사’를 떠올리게 된다.⁹⁰⁾ 이병도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언어와 풍속이 같은 ‘단일민족’ 즉 ‘渾然體’이므로 ‘공통된 최고정신과 이념이 지배’했다고 보았는데,⁹¹⁾ 역시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 단일민족론을 전개한 쓰다의 국민사 구상과 통하는 면이 있다.

다만 이병도는 쓰다와 달리 ‘국민’인 아닌 ‘민족’을 주체로 삼았다. 이병도는 민족을 ‘同一한 地域에서 오랜 歷史를 通하여 言語, 習俗, 其他의 傳統을 같이 해온 共同體’ 즉 ‘歷史共同體’라고 규정하고, ‘國籍共同體’인 ‘국민’과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었을까. 무엇보다 일본이 강요하는 국가 혹은 국민에 조선이라는 민족으로 맞섰던 경험이 컸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우리 민족이 남북한 두 국가로 나뉘어 있는 현실도 의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제2편의 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의 現段階에 있어서의 緊急한 要請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傳統的 指導理念인 이 協同妥協精神을 잘 把握하고 向上시키는 同時에 저 外來의 새로운 形式의 民主主義를 折衝融合하여, 먼저 指

89) 李丙燾(1955), p. 64.

90)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2016) 참조.

91) 李丙燾(1955), p. 12.

導層을 構成하는 中心體의 大同團結을 근거 하여, 大衆을 正道로 引導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⁹²⁾

이병도는 전통적인 지도이념을 새로운 외래문화와 결합시켜 「現段階에 要請되는 指導理念」을 만들고자 하였다. 외래문화의 새로운 형식을 다름 아닌 민주주의였다. 서양 문화와 접촉을 통해 성립된 ‘평민 문화’를 정치적 단위인 ‘국민’의 탄생으로 간주한 쓰다의 국민사 구상과 유사성이 엿보인다.⁹³⁾

이태진은 『국사와 지도이념』(1955)이 『신수 국사대관』(1954)과 더불어 ‘통사적 차원에서 이병도 사학의 두 기둥’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해방 후 서울대 사학과에서 공부한 여러 학자가 『국사와 지도이념』이 ‘국사개설’ 강의 교재였다고 회고한 것을 생각할 때,⁹⁴⁾ 이 책은 한국 역사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념’을 내건 실증사학은 한국 사학사에 자리 잡은 ‘랑케 류의 실증사학’이라는 통념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사실 파악과 가치 인식의 통일, 사료 비판과 이념 추구의 결합이라는 랑케 이래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었다. 식민지기 잠재되어 있던 민족이라는 이념은, 해방과 더불어 조선이 역사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자 민족사의 서술로 구현된 셈이다. 여기에는 쓰다의 국민사 구상을 비롯한 일본 실증사학의 실천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엿볼 수 있다.

92) 李丙燾(1955), p. 109.

93)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2016), p. 115.

94) 李基東, 「斗溪史學의 一面」, 『歷史家의 遺香』, p. 206; 金杜珍, 「歷史學은 冷嚴・正確・科學的이어야 한다」, 『歷史家의 遺香』, p. 212.

6. 식민사학과 실증사학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1966)에서 김용섭이 가장 중시한 것은 식민사학 비판이었다. ‘랑케 류 실증사학’은 “日本人들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歷史觀이나 民族史의 體系 그리고 그것을 追究하는 方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武器, 같은 戰法’을 썼기 때문에 식민사학을 넘어서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⁹⁵⁾ 이병도를 꼭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이병도의 『朝鮮史大觀』(1948)이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가 쓴 『朝鮮通史』(1912)의 “敍述體制에 準하였”다고 보았다. “日帝의 教育을 받은 大部分의 既成史家들이 그들의 그릇된 史觀으로서 主體性을 잃은 共通的인 史書를 數 많이 發行하였다”고 비판하고, 이병도의 『國史大觀』이 “日帝時代의 史書와 類似”하다는 문정창(文定昌)의 지적도 소개하였다.⁹⁶⁾

김용섭은 ‘사회경제사학’, 그 가운데서도 백남운을 높이 평가했다. 백남운의 『朝鮮社會經濟史』(1933)에 대해 “日本人들의 韓國史觀은 停滯性理論과 他律性理論 위에 構築되었는데 이 冊에서는 社會經濟史學에서 特히 問題가 되는 停滯性理論을 日帝治下에서 否定하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백남운의 역사학에 대해 “日帝의 植民地治下에서 그들의 植民史觀에 對하여 正面으로 挑戰한 歷史敍述은 丹齋以後 처음이고 그 後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⁹⁷⁾

식민지기를 보는 틀은 해방 이후로 이어졌다. 김용섭은 “日帝官學者들이 樹立한 植民史觀을 克服해야 하는 일”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歪曲된 史實의 部分的인 是正”을 넘어서는 새로운 ‘韓國史觀’의 수립, 즉 “歷史를 對하는 姿勢, 問題를 選定하는

95) 金容燮(1966), p. 140.

96) 金容燮(1966), pp. 144-145.

97) 金容燮(1966), p. 141.

데 있어서의 價値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자세와 가치관이 바뀌면, 예컨대 조선후기 사회는 “沈滯된 어두운 社會”가 아니라 “封建制에서 벗어나려고 躍動하는 앞날이 보이는 밝은 社會”로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⁹⁸⁾ 스스로 몰두했던 사회경제사 연구에 입각한 내재적 발전론의 전개를 뒷받침하는 인식이었다.

‘랑케 류의 실증사학’이 지닌 문제점 역시 여전하다고 파악했다. 김용섭은 “오늘날 우리의 韓國史研究는 細細한 問題에 對한 煩瑣한 考證을 唯一한 歷史活動으로 보는 傾向이 있고, 體制的인 研究나 巨視的인 洞察, 世界史的인 關聯性에 對하여서는 이것을 度外視하는 風潮가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實證은 歷史學一般의 基礎條件이며 「랑케」史學의 專有物은 아닌 것”이라며, “歷史的 現實의 個性化的 把握을 強調하는 한 世界史의 發展과 韓國史의 發展을 統一的으로 把握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 현실의 개성화적 파악’이라는 실증사학의 근본 자세 자체를 의문시한 셈이다.⁹⁹⁾

그렇다면 이병도는 한국 근대 역사학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민족주의 사관’, ‘유물사관’ 그리고 실증사학이라는 큰 분류는 김용섭과 같았다. 이병도는 이기백과 가진 대담 「근대 한국사학의 발전」(1975)에서 박은식, 신채호, 장도빈(張道斌)을 ‘민족주의적 사관’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았다. 최남선, 신채호에 대해서는 ‘계몽기·과도기의 역사가’라고 평가했다. 정인보는 역사학자라기보다 ‘문장가(文章家)’인데, 민족주의적 사관이 강하여 서술이 과장되었다고 한계를 지적하였다.¹⁰⁰⁾ 다른 회고에서는 진단학회를 꾸릴 무렵 “우리나라 분으로 국사에 관하여 제법 논문다운 논문을(학술지도 없었지만) 발표한 분은 별로 없었다”고 단정했다.¹⁰¹⁾

98) 金容燮(1966), p. 146.

99) 金容燮(1966), p. 147.

100) 「近代 韓國史學의 발전 — 斗溪先生과 李基白 교수와의 對談(1) —」(1975), p. 295, p. 297, p. 302.

이병도는 ‘민족주의적 사관’에 입각하여 활동한 이들을 계몽주의자로 여겼다.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학자는 아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에 대한 태도도 주목된다. 이병도는 백남운의 역사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930년대는 백남운이 “최고라고 하던 때”였지만 자신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¹⁰²⁾ 하지만 ‘후에 左翼系列의 역사가가 된’ 박시형(朴時亨), 김석형(金錫亨)은 진단학보에 논문을 실었다.¹⁰³⁾ 백남운과 박시형·김석형을 가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병도는 백남운이 중시하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회의적이었다. 백남운 역사학에 대해서는 사적 유물론을 도식적으로 적용한 ‘공식주의’라는 비판이 당시부터 있었다.¹⁰⁴⁾ 이에 반해 이병도는 적어도 당시에는 박시형, 김석형의 역사학이 실증적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이병도와 백남운은 모두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추구했지만, 서로 내용은 달랐다. 백남운의 과학이 보편적 발전법칙이었다면 이병도의 과학은 엄밀한 사료 비판이었다. 콩트 류 실증주의가 지닌 과학관을 비판하면서 역사주의가 등장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나가하라 게이지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계몽사상과 문명사의 계승자라고 평가했다.¹⁰⁵⁾ 역사주의 실증사학에 충실한 이병도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지향하는 보편사에 회의적이었다. 다만 엄밀한 사료 비판이 따른다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도 인정했다. 이기백은 이병도가 “가령 유물사관에 입각한 것이더라도 역사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충실한 연구는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았다.¹⁰⁶⁾

101) 「研究生活의 회고(1) — 斗溪先生 古稀紀念 座談會 —」(1966), p. 377.

102) 「研究生活의 회고(2) — 斗溪先生 九旬紀念 座談會 —」(1986), p. 401.

103) 「研究生活의 회고(1) — 斗溪先生 古稀紀念 座談會 —」(1966), p. 380.

104) 洪宗郁(2014), 「白南雲 — 普遍としての〈民族=主体〉 —」,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4』(趙景達 외 편), 有志舎 참조.

105) 永原慶二(2003), p. 89.

이병도가 생각하는 근대 역사학의 본류는 실증사학이었다. 식민지기 실증사학은 진단학회 활동으로 대표된다. 진단학회는 사료 비판과 이념 추구, 즉 과학과 민족을 결합하고자 했다. 랑케 이래 실증사학의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는 사실과 가치의 결합은 일본 관학 아카데미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고 식민지 조선에도 전해졌다. 중국도 비슷했다. 오병수는 푸쓰넨(傅斯年)의 역사학을 ‘과학주의’와 ‘민족주의’로 정리했다. 푸쓰넨은 엄격한 사료 비판에 바탕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중화민족을 옹호 하였다.¹⁰⁷⁾ 푸쓰넨은 유명한 『東北史綱』(1932)에서 만주를 중국 동북지역이라고 부르고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하타다 다카시가 ‘학술적 연구의 결론’이라면서 만주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비판한 사실도 흥미롭다.¹⁰⁸⁾ 동아시아에 온 역사주의 실증사학은 각 나라와 지역에서 나란히 국민사 역할을 떠맡은 셈이다.

이태진은 『국사와 지도이념』을 분석한 뒤 이병도를 ‘실증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역사학자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면 ‘무정자의 역사학’으로 비친다는 설명이었다. 나아가 민족주의, 사회주의, 실증주의라는 분류체계를 재고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¹⁰⁹⁾ 여기서 ‘무정자의 역사학’은 이념의 결여를 가리킨다. 드로이젠이 사용한 ‘환관의 객관성’(eunuchische Objektivität)과 같은 뜻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주의가 탄생한 과정 그리고 국민사의 역할을 떠맡은 동아시아 실증사학의 궤적을 음미한다면, 이념을 추구하면 실증사학이 아니라는 통념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다. 이병도는 랑케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가치를 결합한 실증사학을 추구하였다.

106) 李基白, 「斗溪 李丙燾 선생을 哀悼함」(1989), 『歷史家의 遺香』, p. 426.

107) 오병수(2018), 「民國時期 傅斯年 史學의 興衰 — 과학주의와 민족주의의 연쇄 —」, 『歷史學報』 240 참조.

108) 井上直樹(2013), p. 189.

109) 李泰鎭(2012) 참조.

그렇다면 실증사학은 식민사학인가 아니면 반식민사학인가. 대표적인 식민사학자로 꼽히는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를 분석한 김종학은 “방대한 사료의 축적 위에서 역사가의 주관을 배제한 채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실증사학의 대의는 왜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후쿠자와와 그 문하의 선의(善意)를 선협적으로 전제한 후 그들이 남긴 기록에 의거해서 조선 근대사를 서술한” 것이 실증사학자 다보하시의 ‘근본적 오류’라고 스스로 답했다.¹¹⁰⁾ ‘선협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근대 역사학에게 민족과 국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실증사학은 거의 무자각적으로 국민사를 서술했다. 민족을 ‘선협적으로 전제’한 것은 다보하시만의 ‘오류’는 아니었다. 하타다 다카시는 학문의 순수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자기 확신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식’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학문과 사상의 통일을 주창하였다.¹¹¹⁾ 김종준 역시 실증, 과학, 민족/국가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떨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허위의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¹¹²⁾

일본인의 식민사학도 이병도의 역사학도 모두 실증사학이었다. 양쪽 모두 사실과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였고, 이념은 저 나름의 국가와 민족을 향했다. 정병준은 진단학회를 다룬 논문에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학계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¹¹³⁾ ‘제도 안의 학문(협력)’과 ‘제도 밖의 학문(저항)’을 각각 위아래로 배치한 뒤, ‘제도 안의 학문(협력)’에는 맨 위에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본 본국의 아카데미즘을 표시하고 그 아래 식민지 관제 역사학이라는 동그라미 안에 학회·학술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조선사편수회를 그렸다. 아랫쪽 ‘제도 밖의 학문(저

110) 김종학(2018), 「일본의 근대 실증사학의 에토스(ethos)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사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p. 44, p. 66.

111) 박준형(2018), p. 29.

112) 김종준(2013),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p. 60.

113) 정병준(2016), p. 150.

항)’에는 진단학회를 가운데 놓고 양옆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사회경제학)과 조선학 운동을 그렸다. 진단학회는 제도 안팎의 선을 넘어 식민지 관제 역사학과 살짝 겹치게 표시했다. 만약 이 그림 위에 ‘실증사학’의 범위를 표시한다면, 일본 본국 아카데미즘에서 식민지 관제 역사학을 거쳐 진단학회에 이르는 역삼각형 모양이 될 것이다.

박준형은 “누군가의 역사서술이 ‘실증’적인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실증주의인가를 묻고 또 그 안에서의 계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물었다.¹¹⁴⁾ 실증사학은 민족과 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하여 사료 비판과 이념 추구를 결합했다. 민현구는 이병도가 ‘순수 학구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학술로써 국가에 공헌’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¹⁵⁾ “사료가 말하게 하라”는 실증사학의 중요한 금언이지만, 사료 자체가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사료와 이념 사이 간극은 역사학자의 직관으로 메워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 실증사학이 가능한 이유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근대 역사학의 정의에 가깝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샤프티에는 부르디외와의 대담에서 역사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담론”이라고 언급하였다. “공동체나 민족 국가 수준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뿌리, 준거점, 정체성을 결여할 수 있는데, 역사학이 이런 부재의 느낌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었다.¹¹⁶⁾ 혼란스럽기만 한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틀, 즉 무언가의 역사상을 제시한다는 역사학 본연의 임무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한국 역사학은 식민 지배, 독재 체제에 맞서 공동체의 윤리와 이상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민족은 가장 중요한 이념이었다. 지금 우리 학계는 민

114) 박준형(2018), p. 12.

115) 민현구(閔賢九)(2008), p. 298.

116) 피에르 부르디외·로제 샤프티에 저, 이상길·배세진 역(2019),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킹콩북, p. 84.

족과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역사의 주체에 주목하고 있다. 실증 사학이 견지해 온 민족이라는 이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역사학을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彙報 震檀學會創立」(1934), 『震檀學報』 1, 1934.12.
- 李丙燾(1934), 「震檀辨」, 『震檀學報』 1.
- _____ (1948), 『朝鮮史大觀』, 同志社.
- _____ (1955), 『國史와 指導理念』, 一潮閣.
- _____ (1977), 「自序」,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_____ (2012), 『(斗溪李丙燾全集15)隨想 雜筆』, 한국학술정보.
- _____ (2012), 『(斗溪李丙燾全集別冊)歷史家の 遺香 — 斗溪李丙燾先生 追念文集 一』, 한국학술정보.
- 레오폴트 폰 랑케 저, 이상신 역(2011), 『근세사의 여러 시기들에 관하여』, 신서원.
- 白樂濬, 「史學史上의 巨星 레오폴드·폰·랑케 (上)(中)」, 『東亞日報』, 1936. 5.23-24.
- 金炳模, 「랑케와 그 時代 (下)」, 『東亞日報』, 1936.5.27.
- E. H. 카 저, 길현모 역(2015), 『역사란 무엇인가』(1966), 탐구당.
- 津田左右吉(1965), 『津田左右吉全集 第20卷 歷史學と歷史教育』, 岩波書店.
- 上原專祿(1958), 『歷史學序說』, 大明堂.
- 鈴木成高(1939), 『ランケと世界史學』, 弘文堂書房.
- 旗田巍(1966),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學の伝統」, 『歷史像再構築の課題 — 歷史學の方法とアジア —』(幼方直吉·遠山茂樹·田中正俊), お茶の水書房.
- 東方学会編(2000), 『東方學回想Ⅱ 先學を語る(2)』, 刀水書房.
- 金容燮(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논 저】

- 차하순(1984), 『랑케와 부르크하르트』, 탐구당.
-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 민현구(閔賢九)(2008), 「이병도, 순수 학구적 자세로 한국사학의 토대를 쌓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 헤이든 화이트 저, 천형균 역(2011), 『메타 역사 I』, 지식올만드는지식.
- 李泰鎭(2012), 「斗溪 李丙燾 한국사학에서의 공동체 문제」, 『震檀學報』 116.
- 김종준(2013),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 한국사학사학회 편(2014), 『역사주의: 역사와 철학의 대화』, 경인문화사, p. 35.
- 임상우(2014), 「‘과학적’ 역사학과 국가주의 역사서술」, 『歷史學報』 224.
- 윤해동·이성시 엮음(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 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 책과함께.
- 정병준(2016), 「식민지 관제 역사학과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역사학의 태동 —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10.
- 이상현(2017),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 비코, 크로체, 콜링우드를 중심으로 —』, 삼화.
- 박준형(2018), 「일본 동양사학의 계보와 ‘실증’주의의 스펙트럼 —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滿鮮史’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 34.
- 김종학(2018), 「일본의 근대 실증사학의 에토스(ethos)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사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 오병수(2018), 「民國時期 傅斯年 史學의 興衰 — 과학주의와 민족주의의 연쇄 —」, 『歷史學報』 240.
- 권보드래(2019), 『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 돌베개.
- 피에르 부르디외·로제 샤흐티에 저, 이상길·배세진 역(2019),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킹콩북.
- 永原慶二(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学』, 吉川弘文館.
- 井上直樹(2013), 『帝国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州認識 —』, 塙書房.
- 洪宗郁(2014), 「白南雲 — 普遍としての〈民族=主体〉 —」,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4』(趙景達 외 편), 有志舎.
- 이무지쥬ン 저, 小山哲 역(2015), 「国民史의 布石としての世界史: 日本と朝鮮における「愛国的世界史」と, その結果として生じるヨーロッパ中心主義について」, 『思想』 1091.
- 秋田茂 외 편저(2016), 『「世界史」의 世界史』, ミネルヴァ書房.

원고 접수일: 2019년 7월 8일

심사 완료일: 2019년 8월 24일

계재 확정일: 2019년 8월 24일

ABSTRACT

Ideology of Positivist Historiography:
Historicism in Colonial Korea

Hong, Jong-wook*

Ranke's historicism criticized the universal development law of positivism and noted the singularity of the individual. But historicism, like positivism, put forward historiography as science and emphasized strict criticism of historical material. That is why historicism has been called positivist historiography. Positivist historians pursued fact-finding and value-judgment at the same time. Since the 19th century, the ideology of positivist historiography has been the nation. Chin-Tan Society, led by Lee Byeong-do in colonial Korea, aimed at combining science and nation. It aimed at establishing a Korean national history against the national history of Japanese positivist historiography. Both colonialism historiography and Lee Byeong-do's historiography were positivist historiographies. The positivist historiography that came to be established in East Asia has taken on the role of national history, side by side, in each country and region.

The ideology of the nation that had been lat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embodied in the description of national history when Korea became the historical subject with liberation. A just assessment of the ideol-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gy of nation that has been maintained by positivist historiography c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formation of a sustainable historiography in the 21st century.

